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자 료</h1>				• 미래청초 금융
					• 따뜻한 금융
	보도	2016.11.10.(목) 조간	배포	2016.11.9.(수) 11:00	• 튼튼한 금융
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신 진 창(02-2100-2990)	담 당 자	최 상 아 사무관 (02-2100-2993)
	서울보증보험 상품개발부장 최 성 환(02-3671-7350)		손 명 룡 상품개발팀장 (02-3671-7388)
	저축은행중앙회 상무 한 대 호(02-397-8602)		이 경 연 전략사업부장 (02-397-8680)

제 목 : 은행·저축은행 ‘사잇돌 1·2’ 중금리 대출 현황 및
조정·보완 방안

◆ 은행(7.5일) 및 저축은행(9.6일)은 사잇돌 I·II 대출을 출시한 이후 총 23,503명에게 2,325억원 규모*의 사잇돌 대출 지원

* 은행 : 16,704건, 1,820억원 / 저축은행 : 5,799건, 505억원 (11.8일 기준)

◆ 사잇돌 대출이 안정화 되어감에 따라, 은행·저축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은 중신용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하여 대출한도 조정, 취급 저축은행 확대 등 조정·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

1 사이트돌 대출 지원 동향

1. 응용 내용

- **(개황)** 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총 **2,325억원**(23,503건) 규모('16.11.8.)
 - (은행) 9개 은행(7.5일~) 및 4개 지방은행(9.1일~)에서 '사잇돌Ⅰ' 대출을 총 **1,820억원**(일평균 21.2억원, 총 16,704건) 지원
 - (저축은행) 30개 저축은행(9.6~)에서 '사잇돌Ⅱ' 대출을 총 **505억원**(일평균 12.0억원, 총 5,799건) 지원

- **(대출 특성)**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은행이 저축은행보다 다소 많으며, 대출금리는 6~19%, 상환기간은 5년 분할상환이 대부분

- ❶ 1인당 평균대출액은 은행 1,086만원, 저축은행 879만원으로, 은행의 평균대출액이 다소 높은 편
- ❷ 대출금리는 은행은 6~9%대(88.0%), 저축은행은 14~18%대(85.1%)에서 형성되어, 기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평균금리(25.4%, '16.6월말)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

< 금리대별 대출 비중 (단위 : %) >

	~6%	6%	7%	8%	9%	10%	11%	12%	13%	14%	15%	16%	17%	18%	19%
은행	7.3	25.5	32.5	19.8	10.2	4.8									
저축은행				0.1	0.2	0.9	1.7	2.1	2.4	7.8	20.0	16.5	28.0	12.7	7.6

- ④ **상환기간은 은행 및 저축은행 모두 5년 분할상환이 대부분**
(은행 76.2%, 저축은행 68.5%)을 차지

- ☐ **(판매채널)** 은행은 오프라인 판매 비중(85%)이 매우 높으나, 저축은행은 온라인 비중(61%)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
- ☐ **(승인율)** 은행은 58.2%, 저축은행은 30.6%로,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승인율이 높은 편

2. 대출자 특성

- **(신용도)** 은행 및 저축은행의 사이트들은 각각 차별화된 등급대를 형성하면서 중금리 시장의 공백을 상호 보완

- 은행 대출자는 4~6등급자가 62.5%를 차지하여 기존에 은행 이용이 어려웠던 고객*들도 은행 대출이 가능해짐

* 타 업권 대출경험자 비중(중복 기능) : (저축은행) 20.5% (카드론) 60.2% (대부업) 14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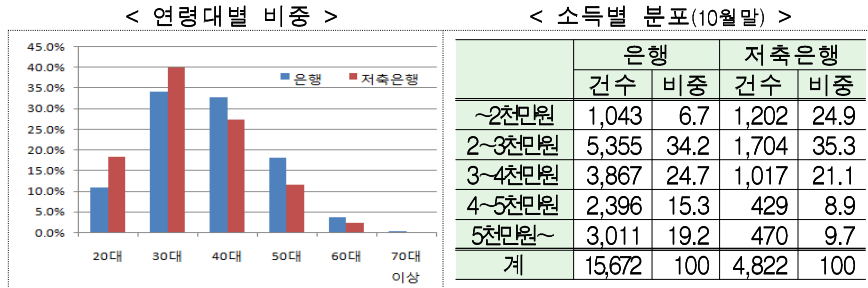
- 저축은행 대출자는 6~8등급이 84.1%로, 은행 고객에 비해 낮은 신용 등급도 혜택을 받고있는 상황

< 신용등급별 대출 비중 (KCB 등급 기준, %) >
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
은행	3.9	9.1	14.7	20.8	24.5	17.1	9.7	0.1	-
저축은행	0.1	0.5	1.2	3.7	10.2	23.2	53.1	7.8	0.1

- (연령, 소득 등)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자금수요도 많은 30~40대 대출자가 은행·저축은행에서 모두 높은 비중(66.8%)을 차지

- 대출자의 평균 소득은 은행 4,000만원, 저축은행 3,100만원으로 은행 대출자가 다소 높으며, 2~4천만원대 중위소득자가 상당수



3. 운용 상황에 대한 평가

- 은행·저축은행 모두 대출 규모가 꾸준히 유지*되고 있고, 승인율도 지속 상승**하는 등 운용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

* 은행의 공급목표 5천억원은 '17년 상반기 중 소진될 것으로 전망

** 저축은행 승인율은 출시 초기 저신용자가 집중되면서 20%대 중반 수준이었으나, 중신용자 중심으로 안정화되면서 최근 30%대 중후반까지 상승

- 또한, 대출이용자의 신용등급 및 금리도 당초 목표했던 수준에 근접하여 중금리 시장의 공백을 채우고 있음
- '사잇돌Ⅱ'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현재까지의 상품 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('16.10.7일 간담회)
- 사잇돌Ⅱ 대출에 대해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, 저축은행업권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반응
- 다만, 사잇돌 대출의 이용자들은 금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우나, 승인율과 한도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
- 이에 대해, 서울보증보험은 아직 대출 초기이긴 하나, 사잇돌 대출의 초기 연체율이 기존 상품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한도 확대 등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

* 10월말 기준 상환기일 도래건 중 5일 이상 연체 발생건은 은행 11,512건 중 24건, 저축은행 2,035건 중 6건으로 출시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수준

2 사잇돌 대출 보완방안

◆ 전반적으로 사잇돌 대출의 운영 상황은 양호하나,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의 제도 보완 추진

- ① (대출금액 상향 조정) 총 2천만원의 1인당 최대 한도는 유지하되, 은행 및 일부 우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개인별 대출금액 상향 허용

- (현행) 서울보증보험이 개인별 보증 심사를 통해 보증한도를 산정
→ 은행·저축은행은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

- (개선) 은행(전체) 및 자체 CSS를 보유한 저축은행 중 사잇돌 대출 실적이 우수한 일부 저축은행*에 대해,

* (예시) 자체 중금리 CSS 구축·운영중인 저축은행(총 13개사) 중 사잇돌 취급 비중이 전체의 10% 이상을 차지하는 저축은행(KB, 신한, 페퍼, 오케이, BNK)

- 보증한도의 최대 50%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*('16.12월)

* 구체적인 한도증액 범위는 서울보증보험과 각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결정

- ② (대환대출의 운용 개선) 대환대출(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)시 총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금액 산정방식을 조정

- (현행)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총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증·대출 가능금액을 산정

- (개선) 자체 CSS를 보유한 은행 및 저축은행에 한해 차주의 신용도, 대환대출 소요금액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('16.12월)

* (예시) 신용 5등급, 연소득 4천만원인 사람이 기존 대출 1,200만원을 대환하려는 경우, (기존 700만원, 금리 15.2% → (개선) 대환약정시 1,200만원, 금리 15.2% 대출 가능

- 대환대출 자금의 목적외 이용 방지를 위해 대출금 입금은 기존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만 허용

③ (신용등급 하락폭 축소)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에 대해 신용등급 하락폭(1.7등급)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('17.상반기)

- (현행) 신용조회회사는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(평균 1.7등급 감소)
- (개선)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의 연체율 분석 등을 통해 신용 등급 하락 폭을 축소*

* 적용 대상 중금리대출의 범위, 신용등급 하락 조정 폭 등은 추가적인 데이터 검증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

※ '16.9월부터 은행-저축은행 연계대출에 한해 신용등급 하락폭을 1.1등급 수준으로 조정

④ (취급 저축은행 확대) 사잇돌 대출 취급 저축은행을 순차적으로 확대·조정('16.12월)

- 미참여 저축은행 중 비대면 채널 추가 구축 등을 통해 취급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의 협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

3 향후 추진 계획

- 총 1조원 규모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잇돌 대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
-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, 총 공급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및 참여 은행·저축은행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

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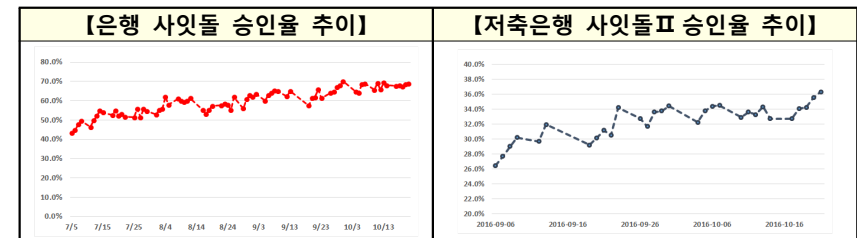
사잇돌 대출 승인을 분석

- ◆ 승인율이란 특정 대출상품을 신청한 사람 대비 대출 실행이 가능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
-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가능여부는 차주의 신용도, 대출 조건 (금액, 금리, 만기 등) 및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전략(수익성 vs 리스크관리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따라서, 모든 대출 신청 건이 승인되는 것이 아니며, 승인율만으로 특정 상품의 성과를 평가하는데에는 한계
- 오히려, 승인율이 너무 높은 경우 건전성·수익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

- (상품간 비교) 사잇돌Ⅱ 대출 및 은행·저축은행의 자체 중금리 상품들의 승인율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, 사잇돌Ⅱ 대출의 승인율은 중간 수준

	사잇돌Ⅱ	A은행	B은행	C은행	D은행	F저축은행	F저축은행	G저축은행
승인율	30.6%	37.3%	13.3%	31.4%	49.4%	24.5%	8.4%	19.7%

- (시계열 분석) 사잇돌 출시 초기 저신용고객 풀림 현상 완화 및 직원 업무숙련도 향상 등으로 승인율은 상승 추세



- (판매채널) 온라인은 대출 희망자가 대출 가능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위주(61%)인 저축은행 사잇돌Ⅱ 승인율이 오프라인 위주(85%)인 은행 사잇돌 승인율에 비해 낮음